

광주시의회 예산심의 '무관심' ... 부실 우려

지방선거 입지자들 지역구 행사 우선 자리비워 환복위는 위원 6명중 3명만 참석 '반쪽 심의'

광주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일부 시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부실 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일부 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이 지역구 행사를 우선시하는 등 자리를 비우면서 일부 상임위는 상임위원 절반만이 참석한 채 진행돼 사실상 '반쪽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로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 심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로 진행된 예산안 심의는 일부 상임위원의 막대한 불참으로 인해 졸속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경복지위원회의 경우 정병문 위원장을 포함한 강은미·조오섭 의원 2명만이 상임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하여 '환복위 3인방'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나머지 상임위 의원들은 회의에 출석은 하지만, 자신들의 질의 순서에 출현한 내년도 본 예산 심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로 진행된 예산안 심의는 일부 상임위원의 막대한 불참으로 인해 졸속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모두가 내년 구청장 출마 예정자라는 점에서 예산심의의 '뒷전'인 채 지방선거에만 '출입'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같은 시간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꼼꼼한 질의가 이어지는 등 활발한 심의가 이뤄졌다. 한 의원은 "자신들이 관심 있는 예산안 질의할 게 아니라, 상임위 소관 실·국의 전체 예산을 면면히 살펴봐야 하는 게 예산심의의 취지"라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리를 자주 비운 의원들이 예산심의 때도 공석이 잦다"고 말했다. 시청의 한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예산심에서도 환복위는 3명의 의원만이 출석 자리를 지켜 '3인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2월2일부터 6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한 뒤 12월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보통세 25% 수준 상향율"

문상필 광주시의원 주장

26일 열린 광주시의회 내년도 광주시청 예산안 심의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보통세 상향 조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민주·북구 3) 의원은 26일 "광주시가 지원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지난 2011년 대비 420억 원 감소했다"며 "보통세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자치구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다 자체수입으로 기본적인 경상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광주시가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마저 감소해 자치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2011년 2487억7400만원 ▲2012년 2267억 2800만원 ▲2013년 2237억5000만원으로 줄었으며, 2014년에는 2067억

9700만원으로 감소해 2011년 대비 419억7700만원이나 줄었다. 따라서 2014년 보통세 8991억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지난 2011년 수준의 재원조정교부금이 되려면 보통세의 27%(2427억6240만원)를 지원해야 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되기 전인 2012년 수준이 되려면 보통세의 25%(2247억7800만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재원조정교부율을 23%로 의결했다"며 "이는 전국 7대 특·광역시 평균 교부율 20.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와 자치구 재정여건과 재정력을 종합분석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에 대한 조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서통합지대조성 적극 챙기겠다"

정홍원 총리, 우윤근 의원 면담서 밝혀

비서실장에 직접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과 관련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호영 총리비서실장에게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민주당 우윤근 의원(사진)이 26일 전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국회에서 정 총리와 단독 면담을 갖고 ▲섬진강주변지역 동서통합 첨단기술지대조성(국비 9387억) ▲섬진강 레포츠시설 조성사업(국비 200억) ▲동서통합교량 설치사업(국비 258억) ▲구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보강사업(국비 100억) 등 4가지 사업에 대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뒤 배석한 이 비서실장에게 관련 건을 직접 챙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관련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 총리에게 설명한 뒤 광양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청회 재개 등 기재부와 교육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 간 의견조율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섬진강 양안의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 일대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해 산업육성과 문화교류, 연계교통망의 확충을 통해 동서통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는 남해안 선벨트 등 장밋빛 공약을 내놨지만, 정부의 직접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며 "대통령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부터 정부가 직접 투자가 나서야 하기 때문에 총리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26일 광주시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본청 앞 통합진보당 농성장을 찾아 오병영, 이상규 의원을 위로하고 있다.연필뉴스

농성장 찾은 광주지역 시민단체

"여수엑스포 시설 재활용 예산 50억 추가 증액해야"

김승남 의원 주장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6일 "엑스포 부지 매각대금으로 편성된 세입 예산 86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엑스포 시설 재활용 관련 예산 50억 원 추가 증액을 통해 사후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추진단을 상정하기 위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수엑스포 매각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올해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광장 시설 재활용 등 효과적인 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초 정부는 여수엑스포에 투자한 선투자금 4846억원을 부지 매각을 통해 2013년~2014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민간 매각 투자공모가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매각대금으로 잡은 세입예산 2400억원 전액 징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014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매각대금 866억원 역시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여

수엑스포 부지에 대한 매각에 집중하는 것보다 '박막회장 활성화와 사후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부처 예산안 심의 시 재활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나 재정 당국에서 재활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설유지관리비 89억원만 반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수박막회장을 중심으로 해양관광레저특구를 조성,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데 집중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올 예결위 예산심사 시 사후활용 관련 예산 50억원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제기반 취약 전남 중남부권 지원

이낙연 의원, 법안 발의



전남 중남부권 등 경제기반이 취약해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26일 전남 중남부권과 경북 북부권 등 낙후도가 심한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남 중남부권, 경북 북

부권 등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하게 열악하다"며 "해당 지역은 성장 동력이 취약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도 계속 하락하는 실정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 낙후 극복·발전 모색

호남미래포럼, 내달 3일 서울서 창립총회

전직 관료·기업인 등 참여

호남 낙후성과 인식 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남 미래포럼'(이하 포럼)이 다음달 3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임현진 서울대 교수, 성경용 한림대 교수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호남의 위상·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김만홍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길철 전남발전연구원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포럼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호남출신의 전직 중앙정부 관료와 기업인,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여성·청년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국가발전 도모를 위한

균형적·건설적인 호남지역 애로사항을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주와 전남의 미래발전 기반 조성을 튼튼히 하고 전북 인사와 교류를 통해 호남의 미래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특히 포럼은 정치적인 색깔과 정당을 배제하고 고향사랑과 고향발전을 순수하게 고민하는 모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창립 준비위원을 맡은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호남의 정치·경제·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가 풀릴 때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며 "철저한 비정치성과 비당파성을 유지해 지속 가능한 고향사랑과 고향발전을 위해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E타워 2층 상가 960㎡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적합)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 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상가 1,800㎡(점포 7칸) 매10억 (보 1억1천, 월610만, 용5억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 월800만 대출 9억 5천), 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 건평500㎡ 17억
- * 벽진동 창고, 고물상용지 2,900㎡ 임대 보2천/월200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 임야 101.851㎡ 매 6억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급매, 조정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4천

광주, 전남권 매도·매수 상담, 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총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10억2천
- 함평군 영일 절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8천
- 대인동 소방도청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금방로 5가에 있을 9억2천
- 공장부지 나주시 남평읍 비행정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조선대학교 앞 대로면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 736㎡(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원룸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 2천에 월 500선 수익 매도 9억4천
- 순천시 가곡동 상업지 내지 587㎡(177)생활주택 허가지역 대출 3억42천 매도 3억6천
- 북구 두암동 싸우나 건물 대지 101평 건평300평 목욕탕은 직영하고 상가는 보증금 4500만원 월1500선 수익 은행2억5천 매도 8억
- 금방로 3가 부근 식당 대지 62평 건평 128평 5억4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소리룸 922평 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 5천에 월200선 임대, 분위기있는 식당도 적합
- 임대·매매,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2월 초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자는 여러 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 매수전략대리업체(법인인가) 근린시설임차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 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건평7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건평446억 최저가1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건평가13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건평7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건평가1억 최저가1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건평가1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건평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건평가1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병동, 자운초고 토지33650㎡ 건물11762㎡ 건평가94억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지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 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 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담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